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손질한다

가산금리 산정체계 불합리한 부분 발견...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방침

최근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오르자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체계 모범기준'을 정비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문제는 가산금리다. 통상 은행은 가산금리에 각 은행의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목표 이익률 등이 반영된다.

최근처럼 시중 금리가 급등하거나 대내외 경제 변수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며 전체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를 오가는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또한 은행들은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표이익률이 그대로 둔 채 가산조정금리(감면금리)를 내리는 방법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기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더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은행들과 함께 대출금리체계 모범기준을 만들었

다. 당시에도 가산금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반면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은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엔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공시가 통일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쉽지만 1개월 전 금리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때문이다.

또한 최근 금리 수준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최고금리만 공개되기도 하는 등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홈페이지에서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신보, 신용보증 최대 4000억원 확대 운용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 운용키로 했다.

또한 신보는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조류독감 피해 기업,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위주로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13일부터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도입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별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를 및 90%의 보증비용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며, 기업당 특별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JB원더랜드' 개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동화 나라가 문을 열었다. 전북은행은 13일 'JB WonderLand' 개관식을 갖고 두 달여 간의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JB원더랜드'는 얼음 동굴로 연결된 산타 빌리지와 우주공간, 설산마을의 움직이는 기차마을과 공룡이 있는 설경을 테마로 연출했다.

'JB원더랜드' 관람비용은 무료이며 전 시기간은 13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주말포함)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의 유치원과 단체는 예약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2011년 5월 처음 문을 연 JB갤러리는 그동안 세계 화페전시회, 악기 전시회, JB Kids Village 등 다양한 주제를 테마로 전시회를 개최해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테마전시회를 위해 임직원 및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물품 구입부터 설치까지 1개월 이상 작업을 했고 규모를 확대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도민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마련한 자리인 만큼 지역민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13일 김창수 농협경제지주 상무와 김제 용지면 거점 AI소독시설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북농협, 김제 용지면 AI 소독시설 점검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13일 김창수 농협경제지주 상무와 김제 용지면 거점 AI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를 격려하고 방역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태호 본부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AI 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사료차량과 생축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검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AI특별방역대책반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며 집중적인 예방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농협은 지역축협에 방제용 소독약품인 생축회 4690포과 소독약 1060병, 방역복 4356벌을 지원한 바 있다.

/안재용 기자

LX공사, 충남도립대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LX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13일 오후 1시 공간정보연구원 창조실에서 충남도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신원식 공간정보연구원장과 이동현 충남도립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수출·고용기업 기술개발지원금 확대

전북중소기업청은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출·고용기업 위주로 기술개발지원금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기청이 2017년 기술개발지원금 예산 편성을 올해와 비슷한 9,517억으로 책정됨에 따라, 전북도의 기술개발자금지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85억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업성장 촉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양대 축으로 구분돼 지원되며 성과 중심의 투자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과 수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성과 중심의 기업지원 강화와 사업계획서 간소화, 신청횟수 확대 및 총량제가 완화된다.

/안재용 기자

남는 쌀 52만톤 사료용 처분

쌀값 하락 요인 없애기 위해... 수입대체효과 1162억원

정부가 쌀 재고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내년에 쌀 52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내년에 사료용으로 처분할 52만톤은 2013년산 재고 쌀(현미 25만톤)과 2014년산 시장격리 쌀 전량(현미 27만톤)으로, 올해 사료용으로 공급한 물량(10.1만톤) 보다 5배 이상 증가된 수준이다.

이 중 2014년산 시장격리 쌀은 2014년 수확기에 쌀이 신곡 수요량보다 많이 생산됨에 따라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매입해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다.

이번 사료용 공급은, 현재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전량(29만9천톤)을 시장격리했음에도 정부 쌀 재고 과잉이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제기됨에 따라 쌀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재고 쌀 52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재고 관리비용(1년 551억원)이 절감되고 사료원료곡물 수입대체 효과(1079억원, 옥수수 기준)가 있어 주정용 대신 사료용으로 공급할 때의 판매 손실(468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1162억원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은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한다.

판매가격은 최근 1년간 옥수수 수입단가와 쌀의 옥수수 대비 사료적 가치 등을 고려해 1kg 당 208원(현미 기준)에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자 산지쌀값은 80kg 당 12만8328원 수준으로 전회(11월 25일) 대비 0.1% 하락했다. 다만 신곡 가격 조사가 시작된 지난 10월5일 이후 전회 대비 하락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과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 물량은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기사제보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